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

Study on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Factors between Family Deficiency and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ce

박선숙, 이인석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Sook Park(pss4498@hanmail.net), Inn-Seok Lee(inseoklee1@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 등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2년 3차년도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6학년과 중학교 3학년 4,36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결손이 없는 가정인 경우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의 관계적 요인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면서 부모구성에 따른 결손가정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에게 있어서 관계적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 | 청소년 결손가정 | 공동체의식 | 관계적 요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factors between family deficiency and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ce. Relation factors were composed of some factors, parents relation, peer relation, teacher relation, neighbor relation. Using samples from Korean Youth Panel Study(KYPS) 2012, authors analyzed 4,362, 6th grader and 9th grader, with a hierarchical regression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proposed b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ommunity spirit vary with significant in gender, age, health, family deficiency. Among control factors, girls, grade, recognition of health, earning affected the community spi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eficiency and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ce was proven to be influential. In conclusion, the researcher's hypothesized research model between relational factors and community spirit was proved to be tru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adolescents in family deficiency were needed to be boosted a many relational factors. Finally, it remarked the limit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

■ keyword : | Adolescents | Family Deficiency | Community Spirit | Relation Factors |

I. 서론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사이버비행 등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이전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동들이 자랄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교육시키고 감독하는 역할이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도시화 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가족이나 부모가 대부분 감당하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해체 또는 상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넘어 개인과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며,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한 의식이다[15]. 현대사회의 다문화, 다양화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와 균형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지만, 가족관계의 구조적 기능을 말해주는 결손가정의 요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며, 특히 부모, 친구, 교사, 이웃 등 관계적 요소를 매개로 하였을 때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적 요인의 개인이 처한 취약한 환경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4][5][15], 교사관계[3][15]를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적 요인들

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결손요인이 부모, 친구, 교사, 이웃과의 관계적 요인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관계적 요인이 공동체 형성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손가정 청소년과 공동체 의식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족해체,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애정, 신뢰, 존경 등의 의미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가정은 사회 구성원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하며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에 의하면 가족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경제적 수준이 상층인 경우에는 3.2%에 불과한데 비해, 중상층 3.9%, 중층 7.2%, 중하층 17.2%, 하층 22.4%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8.8% 140만 가구, 2010년에는 9.2%, 160만 가구에 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9.3%인 170만 가구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2006년 9.8% 14만 가구이었고,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서 2010년 11.6%, 18만5천 가구, 2012년 13.0% 21만8천 가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혼모의 증가, 가족 해체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이나 성격, 습관, 행동, 정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이나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12]는 가정의 기능적 결손문제

가 중학생 시기에 올 때,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중학생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환기로 정상가정의 중학생들도 정체성의 혼란 및 학업·진학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들에 노출되는 시기이다. 여기에 가정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소가 더해지게 되면 중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은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가족단위 혹은 소규모 집단이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그 기능 또한 약화되어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가정에서의 기능적 결손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며,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수록 또래나 교사 이웃들의 역할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 결손가정 청소년과 관계적 요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발달의 대부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환경에 달려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18].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 내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는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학업능력의 향상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한다. [8]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성취동기, 학업효능감과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중기에는 교사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17]은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교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족지지, 친구지지, 전문가 지지 중 가족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전문가로부터는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인 기능인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지지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가족갈등과 친구갈등, 전문가 갈등 순으로 보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보면 부자가족일 때 보다 모자가족일 때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은 개인적 성장환경인 가정과 더불어 학교, 친구,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환경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청소년의 관계적 요인과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공통성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발생한다. 이는 특정한 집단과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정서, 가치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23]은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원들이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서로를 ‘우리’라고 느끼는 연대감으로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였다. [24]는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리적, 지역적 특성과 함께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또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다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만 그 욕구가 충족된다는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과 같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24].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동체라는 개념

이 무색하리만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고도성장파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인간소의, 성공과 권력쟁취주의 등 사회적 환경의 폐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하여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의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5]는 여학생일수록,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관계가 좋은 경우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7]은 청소년들의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악화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지지가 아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교육열로 인한 결과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의 구조적 결손 요인과 관계적 요인들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과 중1패널의 3차(2012)년도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데이터는 2009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0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각 2,300여명 세 패널의 표본을 추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초

등학교 6학년부터 후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2012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2년 조사결과 데이터에는 초6과 중3자료만이 존재하므로 이 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2년 제 3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은 초4패널(초등학교 6학년) 2,370명, 중1패널(중학교 3학년) 2,337명, 총 4,707명이었으나 이중 주요변수에 무효응답한 결측자료를 제외한 4,3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요인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연구모형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은 관계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청소년의 관계적요인은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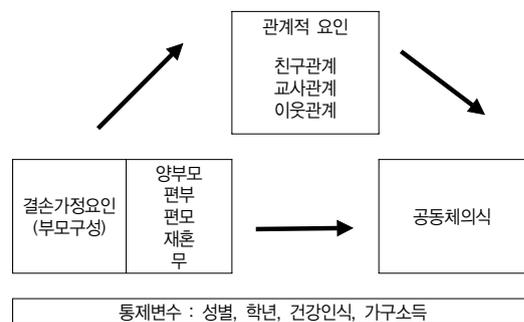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1 독립변수: 결손가정 요인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결손가정요인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부모구성 변인을 본 연구

의 편의상 양부모, 편부, 편모, 재혼, 무(안계심) 등의 다섯 가지로 더미코딩하여 새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 등을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종속변수: 공동체 의식

아동·청소년들에게 공동체(사회, 국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중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연구[2]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작성하였다[14]. 공동체 의식의 척도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의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않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7로 나타났다.

2.3 매개변수: 관계적 요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환경요인으로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사회 관계적 요인을 구성하였다.

관계적 요인에 있어서 부모관계를 보기 위하여[16]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활용하여 원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14]. 또한 결혼가정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상 부모관계가 완전하지 않은 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이더라도 측정문항에 ‘부모님(보호자)’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조사결과 및 분석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중에서 ‘방임’, ‘학대’ 두 가지의 양육태도를 부모관계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학대’ 척도는 해석의 편의상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변인으로는 [20]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않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14]. 분석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역코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97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변인으로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생 학교생활적응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14].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0로 나타났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

이웃관계 변인으로는 ADD Health의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14]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있었으며 모두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3으로 나타났다.

2.4 통제변수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 형제자매유무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건강인식의 경우 ‘매우 건강하다’에서 ‘매우 건강하지 않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분석의 편의상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소득으로 ‘2,000~3,999만원’, ‘4,000~5,999만원’, ‘6,000~7,999만원’, ‘8,000만원 이상’ 네 개로 범주화 하여 재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동체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결혼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과 예측된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결

손가정 요인 변수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 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결혼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은 2,115명(48.5%), 여학생은 2,247명(51.5%)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2,167명(49.7%), 중학교 3학년이 2,195명(50.3%)으로 총 4,362명이다. 건강인식의 경우 4,009명(92%)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최소 0원부터 6억까지였으며 평균은 46,348,200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부모구성에 있어서 ‘양부모’는 3,860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였으며 ‘편부’는 170명(3.9%), ‘편모’ 238명(5.5%), ‘재혼’이 43명(1.0%), ‘부모님이 모두 안계심’이 51명(1.2%)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비율		평균(표준편차)
		빈도	(%)	
성별	남자	2,115	48.5	.48(.500)
	여자	2,247	51.5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167	49.7	.50(.500)
	중학교 3학년	2,195	50.3	
종교 유무	없다	2,359	54.1	.46(.498)
	있다	2,003	45.9	
건강 인식	매우 건강하다	1,638	37.6	1.71 (.624)
	건강한 편이다	2,371	54.4	
	건강하지 못하다	315	7.2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8	.6	
가구 소득 (만원)		216	5.0	4634.82 (2750.632)
		609	14.0	
		849	19.5	
		826	18.9	
형제자매 유무	없다	1,862	42.7	.90(.303)
	있다	447	10.2	
부모 구성	양부모	3,915	89.8	1.2244 (.69480)
	편부	3,860	88.5	
	편모	170	3.9	
	재혼	238	5.5	
	무	43	1.0	
	무	51	1.2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1 부모구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부모구성을 양부모, 편부, 편모, 재혼, 안계심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변인들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인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공동체 의식 네 집단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변인에서 양부모 집단이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관계에서는 양부모와 편부 집단이 편모, 재혼, 무 집단에 비해 부모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765, p<.001$). 친구관계에서는 양부모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151, p<.05$). 이웃관계에서도 양부모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웃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923, p<.001$). 공동체의식에서는 양부모와 편부 집단이 편모, 재혼, 무 집단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945, p<.001$). 한편, 부모구성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나 이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2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청소년의 사회관계적 요인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2]. 분석 결과 매개변인 간 상관관계는 대체로 .40 미만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개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의 낮은 상관관계는 각 변수들이 상호배타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공동체의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속변수인 공동체 의식은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와 통계적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공동체의식
부모관계	1				
교사관계	.214**	1			
친구관계	.321**	.171**	1		
이웃관계	.111**	.264**	.104**	1	
공동체의식	.199**	.364**	.230**	.392**	1

** $p < .01$

3.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는 독립변수인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는 결손가정유무가 매개변수인 관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세 번째는 통제변수와 결손가정유무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에서는 각 모형의 설명력,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계수 값의 변화와 유의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 가운데 성별, 종교, 건강인식, 가구소득은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이 1.92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F=24.607, p < .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통제변수와 결손가정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이 4%로 나타났다[표 3]. 투입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를 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건강인식,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여자일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결손가정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독립변수는 편모와 무로 나타나,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편모가정과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의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3.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a. 종속변수: 공동체의식			
	B	S.E.	β	t
(상수)	8.410	.258		32.537
성별	.193	.075	.039	2.574**
학년	.011	.025	.007	.450
건강인식	.702	.061	.177	11.606***
가구소득	.194	.044	.072	4.354***
편부	-.087	.199	-.007	-.437
편모	-.348	.176	-.032	-1.982 [†]
재혼	.398	.378	.016	1.053
무	-.791	.376	-.032	-2.104 [†]
R ²				.044
수정된 R ²				.042***
F				24.607***

* $p < .05$, ** $p < .01$, *** $p < .001$

3.2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관계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과 관계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계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표 4]. 통제변수와 결손가정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이 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관계($F=51.3057,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를 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에서는 편부, 편모, 재혼, 무 모두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부모관계에 있어서 편모와 재혼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교사관계($F=16.49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를 보면 통제변수에서는 학년, 건강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가구소득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독립변수에서도 편부, 편모, 재혼, 무 모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손가정요인이 교사와의 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친구관계($F=38.203,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에서는 편부, 편모, 재혼, 무 모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결손가정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웃관계($F=45.89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를 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에서는 편모에서만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부모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다소 미미하기는 하였으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관계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4. 결손가정요인이 관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상수)	19.500	11.325	21.611	11.186
성별	.102***	-.006	.142***	-.126***
학년	.168***	.086***	-.034*	.125***
건강인식	.165***	.133***	.195***	.174***
가구소득	.063***	.025	.085***	.047***
편부	-.056	.001	-.022	.002
편모	.033	-.009	.009	-.060***
재혼	-.029	.000	-.010	-.006
무	-.055***	-.017	-.019	.004
R^2	.088	.030	.068	.079
수정된 R^2	.086	.028	.066	.078
F	51.305***	16.492***	38.203***	45.899***

a. 종속변수: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 p<.05, ** p<.01, *** p<.001

3.3 청소년의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요인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관계적요인이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의 확인은 결손가정요인과 관계적요인을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한 회귀식에서 관계적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β)와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β)가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관계적요인을 매개로 하여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손가정요인이 관계적요인을 매개로하여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 사이에서 관계적요인의 매개변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와 2단계 회귀모형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F=24.607, p<.001, F=126.282, p<.001$).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1단계 모형은 통제변수와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을 4%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는 통제변수와 결손가정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이 공동체의식을 26.4%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단계에 비해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22.4%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관계적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a. 종속변수: 공동체의식		
	β	t	P
부모관계	.066	4.526***	.000
교사관계	.241	17.158***	.000
친구관계	.112	7.780***	.000
이웃관계	.310	21.872***	.000

*** p<.001

[표 5]에서 매개변수인 관계적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관계적 요인 중에서 부모관계($\beta=.066, p<.001$), 교사관계($\beta=.242, p<.001$), 친구관계($\beta=.112, p<.001$), 이웃관계($\beta=.310, p<.001$) 모두 다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관계적 요인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결손가정요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변화폭을 살펴본 결과 편부($\beta=.006 \rightarrow \beta=.001$), 편모($\beta=.032 \rightarrow \beta=.015$), 무($\beta=.032 \rightarrow \beta=.024$)로 영향력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beta=.057, p<.001$), 학년($\beta=.060, p<.001$), 건강인식($\beta=.058, p<.001$), 가구소득($\beta=.037, p<.01$)이었으며,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은 모형 1에서의 영향력보다 증가($\beta=.039 \rightarrow \beta=.057$)하였고 건강인식과 가구소득은 영향력이 낮아졌으며 모형 1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성별과 학년이 모형 3에서는 성별($\beta=.007 \rightarrow \beta=.060, p<.001$), 학년($\beta=.007 \rightarrow \beta=.060, p<.001$)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결손가정요인과 공동체의식에서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상수)	8.421		32.689	1.581		4.820
성별	.193	.039	2.585	.282	.057	4.184***
학년	.012	.007	.463	-.099	-.060	-4.352***
건강인식	.701	.176	11.633***	.231	.058	4.174***
가구소득	.191	.071	4.299***	.099	.037	2.513**
편부	-.072	-.006	-.365	-.019	-.001	-.108
편모	-.345	-.032	-1.968	-.159	-.015	-1.028
재혼	.397	.016	1.047	.520	.021	1.569
무	-.795	-.033	-2.128*	-.590	-.024	-1.784
부모관계				.042	.066	4.528***
교사관계				.178	.241	17.238***
친구관계				.064	.112	7.765***
이웃관계				.234	.310	21.872***
R^2		.044			.264	
수정된 R^2		.042			.262	
F		24.607***			126.282***	

a. 종속변수: 공동체의식
* p<.05, ** p<.01, *** p<.001

따라서 결손가정 요인은 관계적 요인이라는 매개변수가 투입되더라도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적요인을 통해 공동체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가정요인이 공

동체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관계적 요인의 간접효과가 훨씬 크고, 설명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요인이 긍정적 매개효과를 함으로서 결손가정 요인의 위험요소를 일부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의 관계적 요인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독립변수는 편모와 무로 나타나,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편모가정과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의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10][15][1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편부가정에 비해 편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여성 및 조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이 관계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 편부, 편모, 재혼, 무의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며, 부모관계에 있어서 편모와 재혼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12]의 결과와도 일치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교사관계에서는 학년, 건강인식 외에는 거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결손가정요인이 교사와의 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친구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

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결손가정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웃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건강인식, 가구소득, 편모에서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결손가정 요인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변수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면서 부모구성에 따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손가정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매개효과를 함으로서 결손가정 요인의 위험요소를 일부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학교와 사회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손가정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한부모 자녀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모형 1에서 편모가정과 부모가 모두 연계된 경우에 비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편모 가정에서 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특히 많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나 상담 및 가족 캠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에서 결손가정 요인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사회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관계적 요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결손가정요인 중에서 관계적 요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 편모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므로 자녀의 양육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활서비스를 포함한 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전인적 관계에 두고 학습과 동시에 관계적 개념을

도입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전한 장소의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이혼문제와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을 잃고 소외되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자살’, ‘왕따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어, 문제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강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환경적 위험요인들을 줄이고 관계적 보호요인을 더 많이 개발함으로써 공동체의식함양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년의 아동들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2012년 자료인 초6과 중3학년의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연구도구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다양한 측정도구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한다면 심층적이고 다양한 실험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자는 최근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보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횡단분석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공동체의식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조사한다면, 더욱 다양한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1] 강가영, 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7-123, 2013.
- [2] 권혜원, *중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김상미, 남진열, “청소년의 또래예착과 학교생활 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 제8

- 권, 제4호, pp.225-242, 2011.
- [4] 김선숙, 안재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339-363, 2012.
- [5] 김위정,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6호, pp.201-222, 2012.
- [6] 김중화, 유희철, “청소년체육 편 : 청소년 수영교실 참여자의 또래관계가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5권, 제1호, pp.609-619, 2009.
- [7]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부모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01-119, 2012.
- [8] 문주희, 백지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제10권, 제3호, pp.39-50, 2012.
- [9]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박가나,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pp.273-306, 2009.
- [11] 박정수, *우뇌를 활용한 미술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결혼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2] 이지윤,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3]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3.
-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3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 2013.
- [15] 한은영, 김미강,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95-124, 2013
- [16]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7] 허은영,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8]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2003.
- [19] Alvanesi, Cicognani, and Zani,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7, pp.387-406, 2007.
- [20] Armsden and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1987.
- [21] B. Barber,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y, CA, 1984.
- [22] Bonnes, Bonaiuto and Ercolani, “Crowding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urban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제23권, 제5호, pp.531-552, 1991.
- [23] Hiller,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p.118, 1955.
- [24] McMillan and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pp.6-23, 1986.
- [25] Obest, Smith and Zinkiewicz,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part 3: Dimensions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geographi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0, pp.119-133, 2002.
- [2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 [27] Zaff, Malanchuk and Eccles,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or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Vol.12, No.1, pp.38-53, 2008.

저 자 소 개

박 선 숙(Sun-Sook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청소년상담, 정신보건

이 인 석(Inn-Seok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군사회복지 정신보건